

보도 일시	2022. 7. 31.(일) 12:00	배포 일시	2022. 7. 31.(일) 12:00	
담당 부서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 장	최현숙 (02-2110-1340)
		담당자	사무관	김응표 (02-2110-1335)
			홍보담당	남지수 (02-2110-1356)

◆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세상, 함께 동행해 주세요!”

- 방통위, 2022년 <어르신을 위한 즐거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 추진
- 지도앱 사용법 교육영상과 디지털 격차해소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7월31일(일)부터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어르신을 위한 즐거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어르신들이 모바일 지도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영상과 함께 따뜻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을 공개했다.

<어르신을 위한 즐거운 디지털 생활>은 방통위가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번째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어르신을 위한 지도 앱 사용법 교육영상>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발해진 온라인 장보기, 큐알(QR)코드 사용법,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소개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도앱 이용 방법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길찾기 앱인 네이버지도를 이용하여 도보로 길을 찾는 방법과 카카오맵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으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2편으로 나누어 제작했다. 특히, 영화 <승리호>로 이름을 알린 아역배우 박예린이 출연해 지도앱을 사용하는 할아버지(배우 김정남, 74세)와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상황극으로 풀어내어 재미와 친근감을 더했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앞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조력자로 참여해 줄 것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8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전광판 및 역사(驛舍) 내 전광판 등에 노출된다.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조금 이나마 해소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며 “방통위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의 각 영상은 방통위 누리소통망(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과 누리집 (<https://kcc.go.kr>),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누리집 (<https://edu.kcmf.or.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끝.

